

에이즈를 예방하자

! 김덕자 *주부_전직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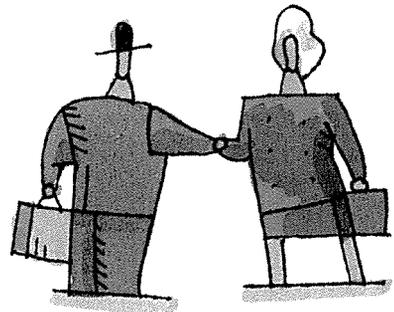
레드리본을 소개해 드립니다. 같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네가, 우리는 온 땅의 에이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찾고 있다.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가 60대의 눈으로 본다면

10여년 전 제주도에 갔을 때, 한센병 환우들과 함께 많은 봉사자들이 휠체어를 밀기도 하고 또는 옆에서 부축하면서 관광 다니는 것을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난다. 그때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느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는데 스스럼없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보고 있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어린 시선들이 있었기에 일그러지고 잘려나간 몸일망정 그들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3년 전에 나는 임파선암이라는 뜻밖의 질병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치료과정을 거쳐야했지만 지금은 건강한 몸을 되찾았다. 그때 나를 위해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하는 가족과 이웃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만약 주변에서 당신은 앞날의 삶이 보장될 수 없는 암환자라면서 꺼리고 무관심했다면, 그 하루하루가 병이나 그 치료에서 오는 고통보다도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스러움이 내겐 몇 배로 더 힘들었으리라 믿는다.

다각적인 예방교육, 에이즈확산을 막는 자립길

AIDS란 먼 나라에서 옮겨온 몹쓸 병이며 치료도 힘들다고 들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AIDS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의 언어생활에 가깝게 맴돌고 있으니 새삼 놀란다. 병원균의 일반적인 감염경로는 많은 과학자들



의 연구를 통하여 이미 밝혀진 것이지만,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그 경로 또한 예측이 어렵게 다양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추세로 국제적인 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날로 서구화되는 복잡한 사회변화과정에서 개인자유주의가 팽배해지고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더욱 보편화되어 어려운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면 속에서 고통 받는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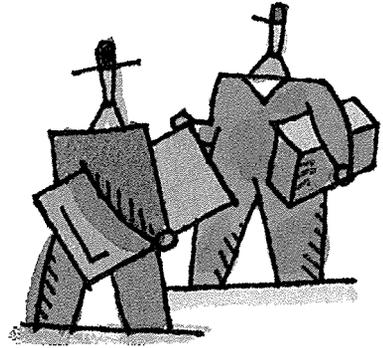
이나 어려움을 감추려는 성향이 더 강해지게 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AIDS환자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만 키우게 되어 음성적으로 또는 악성적으로 감염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염려된다.

현실적으로 이를 치료하는 의술과 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치료나 격리조치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질병만의 특수성, 즉 비사회성이 매우 심각하여 그 확산을 예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IDS확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책강구가 의학적 치료나 행정적 조치보다 오히려 더욱 더 절실하다고 느끼기에, 그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아래에 적어본다.

우선 학교와 훈련기관에서 청년들에 대하여 사전예방교육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정에는 이미 반영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AIDS환자들을 암이나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처럼 받아들이고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서 그들이 보다 밝은 곳에서 살아가게 배려함으로써, 그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그렇게 되었는데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정중으로 되돌려 가르쳐 주게 된다면 이 또한 확산방지대책의 일환이 되지 않겠는가? 즉, AIDS환자들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밝은 생활 및 치료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확산방지를 위한 한발 앞선 정책임을 믿는다.

감염인들도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인식이 필요.

요즘 공영TV를 비롯한 방송매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질병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지식의 전달로 병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면서 그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도 유익한 내용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데, AIDS에 대하여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특히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모든 젊은이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에게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유익한 콘텐츠 개발에 힘을 기울여서 공익에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주문하고 싶다.



종합적인 대책수립은 일관성 있는 자금조달과 시행·운영을 위하여 당연히 정부가 주도하여 AIDS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겠으나, 대기업들의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져야 하겠다. 동시에, 민간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구축하여 도덕적인 생활규범과 생산적인 가치관을 많은 사람에게 심어주는 범국민적 계몽을 계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감염인들도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인식과 상호간의 따뜻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하여 무서운 질병으로 고생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다.

신은 우리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창조하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겨난 AIDS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반성하고 아픔을 품고 사는 이웃을 함께 보듬어 줌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모두 같이 눈물과 땀을 쏟아보자.